

내국인 관광객 감소폭 확대 업계 ‘비상’

9월 1~15일 제주 관광객 7.4% 감소…내국인 10.3% ↓
항공 좌석 감소·유류할증료 부담·‘안전’ 이슈 영향
10월 말 시작 동계운항기간 공급석 확대 여부 주목

9월이 절반을 넘어서는 가운데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항공기 공급 좌석 감소 여파로 할인운임이 대폭 축소되는 등 전반적인 항공요금이 오른 데다, 9월 국내선 편도 기준 유류할증료도 지난 4월(7700원)보다 크게 오른 2만900원으로 책정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10월 25일부터 적용되는 동계운항기간 제주 노선 공급 좌석

확대 여부가 관광객 증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제주도와 도내 정치권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16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9월 1~15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55만4200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만8600명)보다 7.4%(4만4400명) 감소했다. 내국인은 43만4500명으로 10.3%(5만100명) 줄었다. 반면 외국인은 11만9700명으로 5.0%(5700명) 증가했다.

내국인 관광객은 올해 1월 14.0% 증가로 출발해 2월 24.3%, 3월 13.1%, 4월 0.9%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하계운항기간이 시작된 3월 29일부터 국내선 공급 좌석이 지난 해보다 감소하고, 5월 유류할증료도 3만4100원으로 급등하면서 5월에는 7.1% 감소로 돌아섰다. 이어 6월과 7월에도 각각 10.2%, 5.5% 감소세가 이어졌다.

8월에는 내국인 관광객이 107만2400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달(108만3600명)보다 1.0%(1만1200명) 줄면서 감소세가 축소되는 듯했다. 하지만 8월 중순 제주에서 불거진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이후 제주 안전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과답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순쭈부터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다시 눈에 띄기 시작했고, 이달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국내선 공급 좌석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다 보니 개별 관광객 입장에서는 요금 부담이 커졌고, 안전 관련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석 연휴부터 다음 달 한글날 연휴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계기로 관광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농업인 교육 업무 시스템 개편 제주도농업기술원, 이용 절차 간소화 중점

제주도농업기술원의 농업인 교육 과정이 대폭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의 교육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 업무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시스템 구축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개편은 농업 디지털플랫폼 ‘제주DA’와 교육시스템을 연계해 신청부터 출석, 이력 관리까지 교육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편 내용은 ▷제주DA 등록정보를 활용한 교육 신청 ▷정보 무늬(QR코드) 출석 확인 ▷교육 이력 온라인 조회·발급이다.

기존에는 교육을 신청할 때마다

기본정보와 재배정보를 입력해야 했지만, 제주DA 앱 가입자는 기존 등록정보를 불러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이수 내역도 담당 부서에 문의하지 않고 제주DA 앱이나 누리집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수 내역을 PDF 파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주DA 앱에 가입하지 않은 농업인도 별도 조회를 통해 교육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원 제주디지털영농(제주DA) 누리집 교육 게시판(<https://agri.jeuu.go.kr/jadx/web/nagriedu/eduCrs.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후 10년간 유지 또는 전환 가능
공정위, 통합방안 최종 승인

대한항공과 기업결합하는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를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원할 경우 전환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지난 14일 최종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 합병으로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오는 12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도 기존 아시아나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양사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 결제·쇼핑에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탑승마일리지는 1대 1, 신용카드 제휴로 쌓은 마일리지는 1대 0.82(대한항공 대 아시아나) 전환 비율이 적용된다.

문미숙기자

제주 잉여 농산물 ‘미식 자원’으로 거듭난다

사회적경제조직·소상공인 ‘다시 봄 프로젝트’ 협약
연간 500t 수집·전처리로 식재료·로컬 레시피 개발

제주지역에서 반복되는 월동채소 시장격리(산지폐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잉여 농산물을 식품 소재와 로컬 미식 관광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민·관 연대 거버넌스가 공식 출범했다.

제주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5일 제주시 옐피피(LPP)에서 행정안전부의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인 ‘제주 농산물 가치의 재발견×미식 관광 혁신 모델(다시 봄 프로젝트)’ 민관협의체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생드르영농조합법인, 밥상살림 주식회사, (주)제주마미, (유)섬이다 등 도내 수집·물류, 가공·제조, 유통·소비 분야 11개 기



제주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5일 제주시 옐피피(LPP)에서 ‘제주 농산물 가치의 재발견×미식 관광 혁신 모델(다시 봄 프로젝트)’ 민관협의체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관과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해 제주형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선언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으로 추진되는 ‘다시 봄 프로젝트’는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류의 산지폐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력해 잉여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식품 소재와 미식 관광 상품으로 전환하는 지역 순환경제 구축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500t

규모의 잉여 농산물을 수집·전처리하고, 사회연대경제 기업 10개사의 신제품 개발과 고도화를 지원한다. 또 전문 셰프와 협업해 맞춤형 레시피 20종을 개발하고, 도내 소상공인 매장 10곳을 파트너 매장으로 지정·지원해 프리미엄 로컬 미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올해 기반 구축과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 공급망 확대, 2028년 자립 생태계 구축과 전국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노지감귤 유통 가공·군납에 달렸다

올해 예상량 44만t 내외… 도 유통처리 계획 확정
가공 4000t·수출 500t 상향… 농가 동참 여부 변수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양이 생산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 노지 온주밀감 유통처리계획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노지 온주밀감 생산 및 수급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노지 온주 밀감 생산 예상량은 44만3300t 내외(42만5300~46만1300t)로 예측됐다.

과실 비대기에 비가 적게 내려 일조 조건이 좋았던 영향으로 노지 감귤의 당도는 8.5브릭스로 조사됐고 최근 5년 평균보다 1.4브릭스 높은 수준이다.

반면 생산예상량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이다. 게다가 광센서 선별기로 측정한 당도 10브릭스 이상, 2S(45~49mm) 미만과 2L(70~77mm) 대형과의 상품 출하를 허용하면서 상품기준으로 전체 생산 예상량의 83.2%인 36만8800t에 이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상품용으로는 도

외 도매시장을 통해 23만5800t, 수출 2500t, 군납 1000t을 처리하고 도내 소비와 택배 등 기타로는 31.8%인 14만900t을 소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통처리의 핵심인 상품의 감귤의 가공용 처리는 지난해 5만9000t에서 6만3000t으로 4000t가량 늘려잡았다. 하지만 예년보다 당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매단가가 kg당 210원으로 동결돼 농가들이 얼마나 가공용으로 처리할지 미지수이다. 게다가 군납 물량을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려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자치도는 가공용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무자조금으로 자가능장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생산량의 68%인 16만3000t을 처리하고 내년 1~3월에는 나머지 7만7000t가량을 유통한다는 계획이다.

윤희영기자

📶 제주도정소식

9월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달입니다.
협암·협당·클레스트를 수치를 확인하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문의) 건강위생과 ☎064-710-2931~2935 / 제주 서귀포시 각 보건소

2026년 제주도 민간기록물 수집기증 안내
○ 기간: 2026년 7월 20일 ~ 2026년 10월 31일
○ 대상: 과거 제주에 거주했거나 제주 관련 기록물을 소장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수집자료: 1946년 도제 실시 이후 제주의 역사·행정·문화·생활상 등을 담은 사진,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
※ 보존 가치가 인정된 기록물은 제주지방자치자료관에 전시 보존되며, 기증자에게 기증 증서 수여.
○ 기증방법: 제주도 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 제출 (원본 무상 기증 원칙), 이메일: taryoung78@korea.kr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기록물관리팀) ☎064-710-2227

“취업 준비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만 15세~69세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층 등 구직자
○ 지원요건 *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참여유형 결정
- I유형 : 15세~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청년층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II유형 : 중장년층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무관
※ 청년 및 특정계층(결혼이민자 등) 소득 재산 무관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 지원
- (공 통)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 (I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360만원 + 가족수당(부양가족 있을 시)최대 240만원
-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해당 시)
* 참여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은 고용24 (www.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참고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방법 : 온라인 (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문의 : 제주고용센터(☎ 710-4592~3) / 서귀포지소(☎ 710-4594)

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니트, 사랑향, 설향, 유라, 레몬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교접, 접순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아마사기,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7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랑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콘도로번)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 표 : 010-2691-1883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나리 ● 제라논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